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집착과 혐오에 대한 생각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것

어떤 것도 잡거나 파악할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에 너무 지배받고 있어서, 때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바치기까지 합니다. 전쟁은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혐의 생각이거나 느낌은 매우 단단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무지개만큼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바쳐 충동을 만족시키고, 권력과 쾌락, 재물을 갈망한다면, 분명 무지개를 잡고 싶은 아이처럼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 언제나 강한 욕망이나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각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그것들이 근원적으로 비어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생각이거나 감정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다음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위와 같이 알아차린다면 이들은 당신의 마음을 잡아두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南·北, 서로 인정해야 대화 가능”

민추본 창립 13주년 기념세미나서 대북정책 방향 점검

남북회담 무산으로 남북관계가 재냉전 분위기로 접어든 가운데 조계종 민추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스님)는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대회에 이어 ‘한반도 평화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민추본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한반도 위기에 대한 이해와 진단’ △이도흠(한양대 국문학과 교수(민추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의 접근’ △김진환(국대 통일인문학 연구단 연구교수(민추본 정책기획위원)): ‘불교계의 실천적 과제와 역할 모색’ 등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제정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영순(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남북 회담 무산으로

재냉전 분위기 고조

남남 갈등이 더 위험

불교 '중도' 방향 찾아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회담 무산은 남북 간 상호불신이 위기에 달렸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북 관계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깊이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남북회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었던 탈냉전 분위기가 급속도로 재냉전 현상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화해 다음의 불신과 대결이 더 위험하다. 극단적인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겪으면서 근거 없는 북한의 적대 감정만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남한 국민들은 북한이 그냥 싫은 것이다. 피로감이다. 북쪽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대표단 단장의 급을 놓고 실무회담이 무산되는 있을 수 없다. 군사적 대치, 체제의 불안정성, 정치군사력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은 허사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시작으로 극도의 불신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로 나선 조계종 종회의원 제정 스님은 불자들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남북 관

계 갈등을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 스님은 “현재 상황은 남북 갈등을 넘어 남남 갈등으로 들어선 상태다. 하지만 이런 긴장 고조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남북 관계는 감정적 대치가 아닌 불자들이 공부해 화합의 차원으로 가야한다. 이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중도의 원리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선 기념대회에는 조계종 민추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이 기념사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와 통일부 이수영 교류협력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의 축전을 봉송사 주지 진화 스님이 낭독했다. 회주 선목 혜사 스님은 108산사순례회원들과 남북통일을 기원하기도 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임 군종교구 수장 누가 될까?

정우·계성 스님 유력

18일 상임위원회서 추천

군포교를 이끌어갈 제3대 조계종 군종교구 교구장 선출에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 상임위원회는 6월 18일 오후 2시 교구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현교구장 자광 스님의 임기는 7월 25일까지로 군종특별교구장은 군종교구 상임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원승 총원 및 관리, 군사철 지원, 군포교 후원사업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차기 교구장으로는 前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조계종 전법담당 계성 스님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정우 스님은 20대부터 군포교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왔다. 일반 사병으로 26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면서도 군법당 2곳을 창건



정우 스님

계성 스님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해 정우 스님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기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어느 분이 되든 군포교를 위해 힘껏 노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계성 스님은 군법사 출신으로 예비역 군승회장과 군종교구 부교구장을 맡는 등 군종교구의 중무행정에 밝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계성 스님은 “말했다 안말했다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군포교 현안

이 많은 만큼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前포교위원장 해홍 스님과 현교구장 자광 스님은 유력후보였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홍 스님은 본지와와 통화에서 “포교위원장 소임을 내려는 지 얼마 안됐다”며 “군포교는 미래 한국불교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로 원력이 스님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 호국연사 불사 추진 중 심장 수술을 하기도 한 자광 스님은 “건강문제가 크다. 군포교에 원력이 큰 스님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장·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군종교구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선임군승 1인, 군승회의 선출 군승 6인,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 등 21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후보 추천 후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노덕현 기자

“사찰음식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전문 스님, 사찰음식 학술 심포지엄서 주장

사찰음식을 관광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사찰 특유의 스토리텔링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전문 스님(평택 수도사 주지)은 6월 8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로 열린 ‘2013 사찰음식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찰음식의 문화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사찰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 스님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찰음식 특화사업에 주목했다. 평택 수도사의 경우 원효 스님의 오도성지임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봉림사는 묘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

량으로 소개하며, 진관사는 수륙제를 통해 사찰음식을 만날 수 있게 한다.

전문 스님은 “사찰음식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종교의 외형을 떠난 모든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틀을 빨리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로 나선 이심열 동국대 전통사찰음식연구소장 역시 “사찰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고 관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사찰음식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재미와 흥미를 덧붙인 텔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취임

6월 12일 백범김구기념관서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6월 12일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제5세 종정 석진 지공 대종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경원 스님과 원로 도기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선 스님 등 종단인원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전국일부문도회장 의륜 스님,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호불사 신도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으로 지원사 신도대표의 발원문 낭독과 부원장 용운 스님의 종정스님 행장소개, 총무원장 경원 스님의 봉행사와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의 축사로 진행됐다.

종정 지공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 아집과 독선을 털어버리고 부처님 평화사상과 일봉존자의 평화정신을 바탕으로 종단이 화합해 대통합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은 6월 12일 종정 지공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대한불교법화종 전국 각 교구총무원장 결의문

◆개최일시 : 2013년 6월 12일 오후 2시 / ◆개최장소 : 제주교구 총무원

決議文

대한불교법화종은 1946년도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모든 종도들이 법화일승묘법의 진리를 구현하였다. 그러나 작금에 창종 당시에 시대정신과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중도에 벗어난 전 총무원장 해륜스님의 중헌종법에 벗어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한불교법화종 각 교구 총무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법화종도들은 하루속히 본 결의문과 같이 행하여 종단을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합니다.

- 하나 -

2012년 5월 12일 열린 제18차 임시중앙총회에서 전 총무원장 해륜스님(김용대)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 선포된 바, 위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회법상,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70여 년 동안 이어온 대한불교법화종의 종전 회의 관례 및 전국 각 총무원장 회의에서 전 총무원장 해륜(김용대)스님에 대한 불신임 안 가결을 승인 하오니 전 법화종 종도들은 이를 여법하게 받들어 시행한다.

- 하나 -

제18차 임시중앙총회에서 총무원장 서리로 임명된 승현스님(이재열)과 비상체제의 집행부를 승인 하오니, 이유는 종정스님의 사표가 이미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였고, 다음으로 총무원장 선출권한이 있는 중앙총회에서 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중헌종법에 매우 타당하므로, 전 법화종 종도들은 이를 받들어 시행한다.

- 하나 -

총무원장 서리 승현스님(이재열)이 임명한 현 집행부는 하루속히, 전국 각 교구 및 중앙총회를 재정비하고, 3개월 내에 총무원장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을 결의 하오니, 전 법화종 종도들은 이를 받들어 시행한다.

- 하나 -

위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불교법화종 전국 원로 큰스님, 교구원장스님, 중앙총회의원스님 및 지방총회의원스님과 교구 총무원 국장을 비롯한 모든 법화종 소속 승려들이 모여 승려대회를 여법하게 개최하기를 촉구한다.

2013년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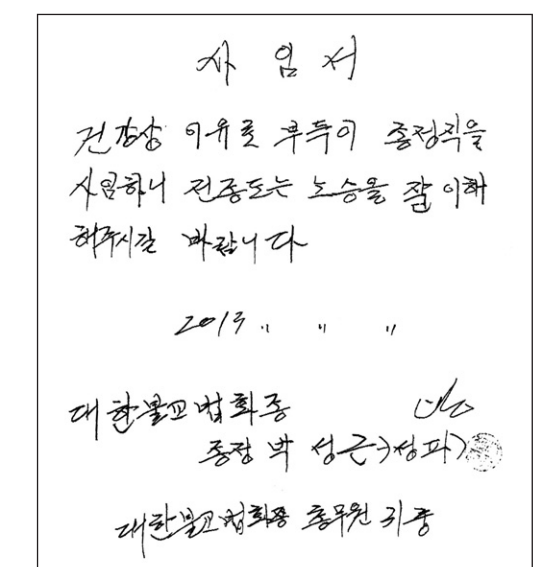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법화종 전국 각 교구 총무원장 일동 / 협의회장 관효

사임서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 종정직을 사임하니 전 종도는 노승을 잘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013. . .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박성근(성파)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 귀중



종정 사임서 원본